

100大 기업투자지수 현황

(Corporate Investment Index, CII)

- 수익성 악화, 규제, 내수 부진이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 -

2008. 1.

현대경제연구원 · 서울경제신문

1. 기업투자지수의 개요

기업투자지수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환경, 투자의지, 투자성과 등에 대한 기업의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지수화하여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기업투자지수는 ①투자추세지수, ②투자여건지수, ③투자심리지수, ④투자성과지수, ⑤기업가정신지수의 5개 개별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개별지수의 평균값을 구해 종합투자지수를 산출하였다. 기업투자지수의 목적은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투자에 대한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6개월마다 100대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를 작성할 계획이다. 본보고서는 제 1회 조사보고서로서 매출액 기준 국내 111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2월 17일부터 16일간 조사를 진행, 8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설문조사 결과이다.

2. 기업투자지수 조사 결과

□ 전체 투자 전망

(2008년도 투자 전망 밝음) 종합투자지수가 138.1로 중간 값인 100을 크게 웃돌아 2008년도 기업 투자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 여건은 불만족이나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큼) 반면 투자여건지수가 108.5로 다른 개별 지수에 비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88.5%로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77.1%로 현재 투자 여건을 너무 나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 시 투자 심리 불안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투자심리지수는 157.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기업 비중 (91.6%)과 경기가 악화되어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기업 비중 (66.3%)의 차이가 커 경기 악화 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별 투자 전망

(유통산업, 가장 많은 투자 증가 기대) 산업별로는 유통 산업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의 경우 투자추세지수가 175로 업계 평균 140.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08년에도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 100%가 그렇다고 응답해 투자 증가가 가장 기대된다.

(조선, 자동차, 물류 산업 투자 증가 기대) 조선, 자동차, 물류 산업의 투자추세지수는 각각 175, 183.3, 185.7을 기록 2008년에도 투자 증대가 기대된다. 이들 산업들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비중이 100%일 뿐 아니라 2008년에도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조선 75%, 자동차 83.3%, 물류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2008년에도 투자 증가가 기대된다.

(기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투자 여건 불만) 산업별로는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은 기타뿐으로 나머지 산업에서는 4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 철강, 건설 산업은 경기 악화 시 투자 악화 우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철강, 건설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를 지속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조선 25%, 철강 40%, 건설 37.5%로 나타나 이들 산업은 경기 악화 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기업가정신

(투자 리스크 해소가 기업가정신 고양의 첩경) 한편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 의지는 강하나 투자 리스크 회피 성향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지수 (131.4)가 종합투자지수(138.1)보다 낮게 나타났다. 우선 다소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신사업을 발굴·추진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88%를 차지하여 신사업 추진 의지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높더라도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4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조선 25%, 철강 20%, 석유화학 44.4%, 물류 42.9%, 식음료 20%, 기타 25%로 나타나,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기전자, 건설, 유통,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동일한 질문에 50%의 기업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기업가정신이 전반적으로 왕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 규모가 작고 존속연수가 짧을수록 투자에 적극적) 종합투자지수 뿐 아니라 투자추세지수, 기업가정신지수가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존속연수가 짧을수록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 종합투자지수는 1조 원 미만 143.5, 1~5조 원 미만 134, 5조 원 이상이 130.7로 나타났다. 또 투자추세지수는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157.5, 1~5조 원 미만 기업들이 136.7,

5조 원 이상 기업들이 107.7이었다. 더욱이 기업가정신지수도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135, 1~5조 원 기업들이 133.3, 5조 원 이상 기업들이 115.4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기업가정신지수를 보면 존속 연수 20년 이상 기업들이 130로 나타난데 반해 존속 연수 20년 미만 기업의 기업가정신지수는 138.5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투자 용도

(2008년에는 신규투자가 확대될 전망) 기업의 투자 용도로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연속, M&A, 기타 가운데 기존투자의 연속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에는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45.8%로 하락하였다. 반면, 신규투자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7년 32.5%에서 2008년 47%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투자 용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투자 용도로 신규투자 응답 기업 비중이 2007년 83.3%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에도 신규투자 응답 기업 비중이 83.3%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석유화학, 건설, 물류, 유통 산업에서도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투자 응답 기업 비중은 석유화학이 2007년 38.9%에서 2008년 77.8%로, 건설이 동 25%에서 62.5%로, 물류가 동 14.3%에서 57.1%로, 유통이 25%에서 50%로 각각 상승하여, 이들 산업에 있어서의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A도 증가) 투자 용도를 M&A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 2.4%에서 2008년 4.8%로 다소 증가함에 따라 2008년에는 기업들이 M&A에 대한 투자도 다소 늘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별로 보면 2008년에 M&A에 투자할 것으로 조사된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서비스의 3개 산업으로 M&A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각각 20%, 5.6%, 10%로 조사되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5조 원 미만 기업들의 M&A투자가 기대된다. 2008년 투자 용도로 M&A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자산 규모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7.5%, 자산 규모 1~5조 원 미만 기업들이 3.3%로 조사되었다. 특히, 1조 원 미만 기업들은 투자 용도로 M&A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 2.5%에서 2008년 7.5%로 다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M&A 투자가 활발할 전망이다. 존속 연수별로는 20년 미만 기업들의 M&A가 투자가 가장 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용도가 M&A라는 응답 비중이 2008년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07년의 경우 M&A에 투자했다는 기업은 존속 연수 20년 미만 기업들뿐(응답 비중 15.4%)이었다.

(신사업부문은 연관사업이 주도) 주요 투자 분야로 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

은 2007년 92.8%에서 2008년 9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에도 연관사업에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그리고 산업별로도 석유화학, 건설, 기타 산업에서만 비연관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건설, 기타의 3개 산업은 2008년 주요 투자 분야로 비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각각 11.1%, 12.5%, 25%로 나타났다. 나머지 산업들은 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100%로 집계되었다.

□ 투자 애로 요인

(수익성 악화, 규제, 내수부진이 기업 투자의 가장 큰 애로) 현재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수익성 악화'가 3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투자관련 규제' 27.7%, '내수부진' 21%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문제’와 ‘반기업 정서’ 또한 주요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 타 산업에서는 투자 애로 요인이 아닌 ‘반기업 정서’가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투자 애로 요인 응답 비중 5.6%)으로 나타났다. 또 ‘노사 문제’는 철강 20%, 전기전자 12.5%, 석유화학 5.6%, 자동차 16.7%가 투자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기업 존속 연수가 60년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노사문제 (20%)’ 또한 상당히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 존속 연수가 짧을수록 ‘투자관련 규제’를 지적하는 비중이 큼) 존속 연수별 투자 애로 요인 중 ‘투자관련 규제’ 응답 비중은 20년 미만인 38.5%, 20~40년 미만이 36.7%, 40~60년 미만이 20%, 60년 이상이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 조사대상 기업들 중 31.3%가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지적하여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산업별로는 조선 (75%), 석유화학(38.9%), 서비스(50%) 산업에서 특히 규제 완화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산 규모별로는 응답기업 비중이 1조 원 미만이 25%, 1~5조 원 미만이 46.7%로 조사되어 5조 원 미만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았다. 존속 연수별로는 60년 미만 기업들이 '투자관련 규제 완화를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했으며, 응답 비중은 20년 미만 38.5%, 20~40년 미만 30%, 40~60년 미만 33.3%로 집계되었다.

3. 시사점과 과제

첫째,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의 투자 여건에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고, 투자관련 규제를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투자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패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둘째는, 산업별로 투자 애로 요인과 정부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요구가 달라 산업별 맞춤형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산업별 투자 환경 조사를 통해 산업별 투자 환경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신산업 육성 협력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연관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 한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의 신산업 육성 협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미래의 경제사회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투자·육성시킬 분야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민간 공동 미래전략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이 두 번째 우선 사항으로 나타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자원 확보 전략의 추진 또한 절실하다.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자원 확보 전략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조달 환경 마련해야 한다. 중동 지역은 물론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들과의 자원외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또, 국내외 자원 개발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공동으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촉진하여, 북한 내 지하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기업가정신 고양 전략 추진이 시급하다. 벤처캐피탈, 엔젤 등 위험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기업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도입 등 교육을 통한 기업가 양성 및 기업가정신 함양 체제 마련, 창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I. 기업투자지수의 개요

○ 기업투자지수의 정의와 구성

- (정의) 기업투자지수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환경, 투자의지, 투자성과 등에 대한 기업의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지수화 하여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됨
- (목적)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투자에 대한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구성) 기업투자 지수는 ①투자추세지수, ②투자여건지수, ③투자심리지수, ④투자성과지수, ⑤기업가정신지수의 5개 개별 투자지수로 구성되어 있음

○ 기업투자지수 계산 방법

- 개별투자지수 계산 방법

- 개별 투자지수 = '그렇다' 응답 비중 - '그렇지 않다' 응답 비중 + 100
- 예: '그렇다'가 60% 이고 '그렇지 않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개별 투자 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종합투자지수의 계산 방법

$$CII = \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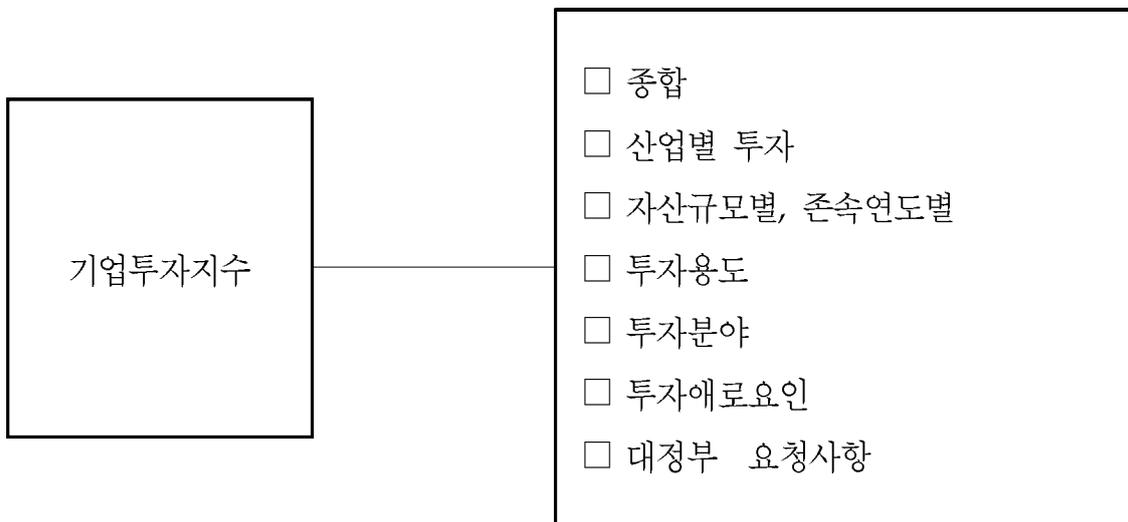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7년 12월 17일 ~ 2008년 1월 2일(16일간)
- 조사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경제신문 공동 주최
- 조사 대상 : 매출액 기준 국내 11개 업종 100대 기업
- 응답 기업 : 83개 기업 (응답율 83%)

○ 향후 조사계획

- 기업투자지수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앞으로 매 반기마다 동일한 조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 조사시점은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본 보고서가 제1회 조사 보고서임

○ 결과 분석



○ 기업투자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5개 개별 지수	투자추세 지수	올해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보다 증가된 규모입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입니까?	(1)그렇다 (2)그렇지 않다
	투자여건 지수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십니까?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심리 지수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는 지속하시겠습니까?	
	투자성과 지수	올해 하반기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업자정신 지수	지금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시겠습니까?	

II. 기업투자지수 조사결과

1. 종합투자지수 결과

○ (종합투자지수 138.1로 올 기업 투자 전망 꺾임) 종합투자지수가 138.1로 중간 값인 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올해 기업 투자 활발할 듯

- 투자추세지수(142.2), 투자여건지수(108.5), 투자심리지수(157.9), 투자성과지수(150.6), 기업가정신지수(131.4) 등 5개 개별 지수가 모두 100을 상회

○ (투자심리는 양호, 투자여건은 불만) 개별지수 중 투자심리지수가 157.9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여건지수가 10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가장 높은 개별지수는 투자심리지수로 157.9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설령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현 투자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

- 반면, 투자여건지수가 108.5로 조사되어 현재의 기업 투자 여건이 기업들의 기대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하며, 개선 전망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여건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기업이 향후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의 투자 여건이 너무 안 좋게 체감(體感)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경기 악화 시 투자 심리 불안 가능성이 큼) 투자심리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나 현재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기업 비중과 경기가 악화되어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기업 비중의 차이가 커 경기 악화 시 투자 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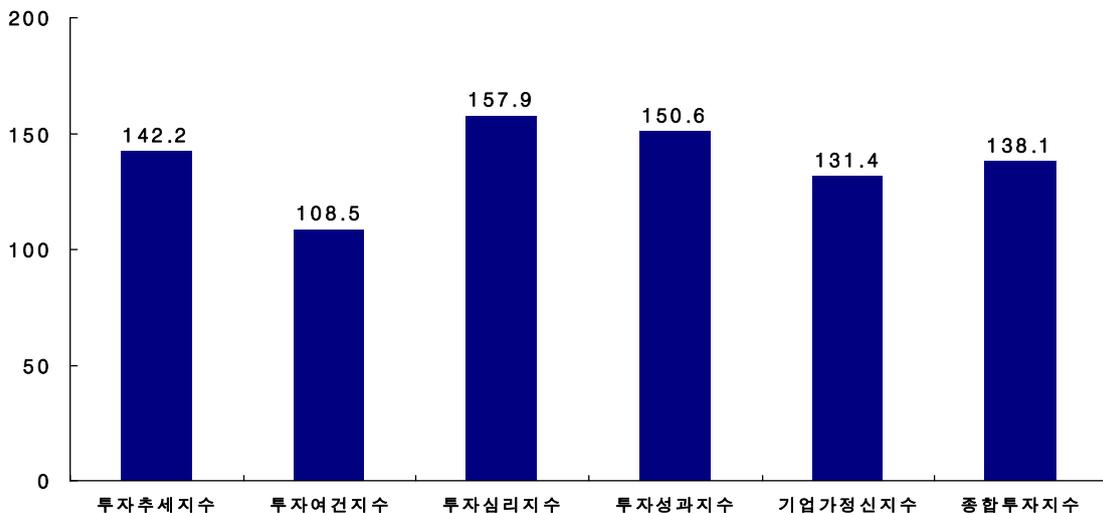
- 현재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91.6%인 반면 경기 악화 시에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중은 66.3%에 그쳐, 경기 악화 시 투자심리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큼

○ (투자 리스크 해소가 기업가 정신 고양의 첩경)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 의지는 강하나 투자 리스크 회피 성향 역시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지수가 종합투자지수보다 낮게 나타남

- 다소 리스크가 존재하더라도 신사업을 발굴·추진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88%를 차지하여, 신사업 추진 의지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높더라도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결국 기업들이 신사업에는 비교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리스크가 따르는 신사업 추진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함

< 전체 종합투자지수 >

개별항목	투자추세지수	투자여건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지수	종합투자지수
지 수	142.2	108.5	157.9	150.6	131.4	138.1



2. 산업별 결과

(1) 종합 평가

○ (식음료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투자 전망 밝음) 식음료(84.1)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종합투자지수가 100보다 높게 나타나, 올해 투자 전망이 밝을 것임

- 조선, 건설, 자동차, 물류, 유통, 서비스, 기타의 종합투자지수는 업종 평균 137.4보다 높게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경우 모든 개별지수 역시 100보다 커 전반적인 투자 전망이 밝음

(2) 개별지수 평가

① 투자추세지수

○ (대부분의 산업에서 투자 증가가 기대) 투자 증가 기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전자, 식음료, 철강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는 2007년 대비 2008년 투자 규모 증가가 기대됨

- 전기전자의 경우 2007년에 2006년보다 투자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2.5%, 2008년에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50%로 나타나 투자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식음료의 경우 2007년에 2006년보다 투자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80%, 2008년에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20%로 나타나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임
- 철강의 경우, 투자추세지수가 100이고 2008년에 투자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 또한 60%(그렇지 않다 40%)에 그쳐, 투자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 (가장 기대되는 투자 증가 산업은 유통) 유통산업의 경우 투자추세지수가 175로 업계 평균 140.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08년 투자 의지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에 투자 증가가 가장 기대됨

- 유통산업의 경우, 2008년에도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질문에 조사 대상 기업 100%가 그렇다고 응답해, 투자 증가가 가장 기대되는 산업 부문임

○ (조선, 자동차, 물류는 2008년에도 투자 증가 기대) 조선, 자동차, 물류 산업의 투자추세지수는 각각 175, 183.3, 185.7을 기록 2008년에도 투자 증대가 기대됨

- 이들 산업들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100%일 뿐 아니라 2008년에도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조선 75%, 자동차 83.3%, 물류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나, 2008년에도 투자 증가가 기대됨

② 투자여건지수

○ (현재 투자 여건은 불만족이나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는 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큼

-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50%를 넘는 산업은 기타뿐으로 나머지 산업에서는 40%를 하회

· 특히 조선, 건설, 식음료 산업의 경우 현재의 투자 여건에 만족한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인 산업은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 유통, 서비스의 6개이며, 나머지 산업에서도 50%를 상회

③ 투자심리지수

○ (모든 산업의 투자심리가 양호) 모든 산업의 투자심리지수가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투자심리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동차, 물류, 서비스의 투자심리지수가 각각 200, 185.7, 180으로 나타나 투자심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산업으로 나타남

- 반면, 조선(125), 철강(120), 유통(125)은 전체 투자심리지수 평균 15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투자심리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조선, 철강, 건설은 경기 악화 시 투자 위축 우려) 조선, 철강, 건설의 투자심리지수는 업계 평균인 154를 하회할 뿐 아니라 경기 악화 투자 지속 기업 비중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를 지속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조선 25%, 철강 40%, 건설 37.5%로 나타나 이들 산업은 경기 악화 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됨

④ 투자성과지수

○ (식음료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투자성과가 양호) 식음료의 투자성과지수가 80으로 조사된 이외에 모든 산업의 투자성과지수가 100을 상회,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았으며,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기대됨

-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경우 투자성과지수가 200으로 조사되어 모든 기업이 2007년 뿐 아니라 2008년에도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식음료의 경우 2006년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투자 대비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단, 2008년에는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 비중이 60%로 나타나, 투자 성과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큼

⑤ 기업가정신지수

○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가정신이 양호) 식음료와 기타를 제외한 산업 모두 기업가정신지수가 100을 상회, 기업가정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식음료와 기타의 기업가정신지수는 각각 80과 100으로 나타나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왕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기업가정신이 가장 뛰어난 산업은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기업가정신지수는 166.6으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기업 비중이 83.3%,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이 83.3%로 나타나, 위험 감수라는 기업가 본연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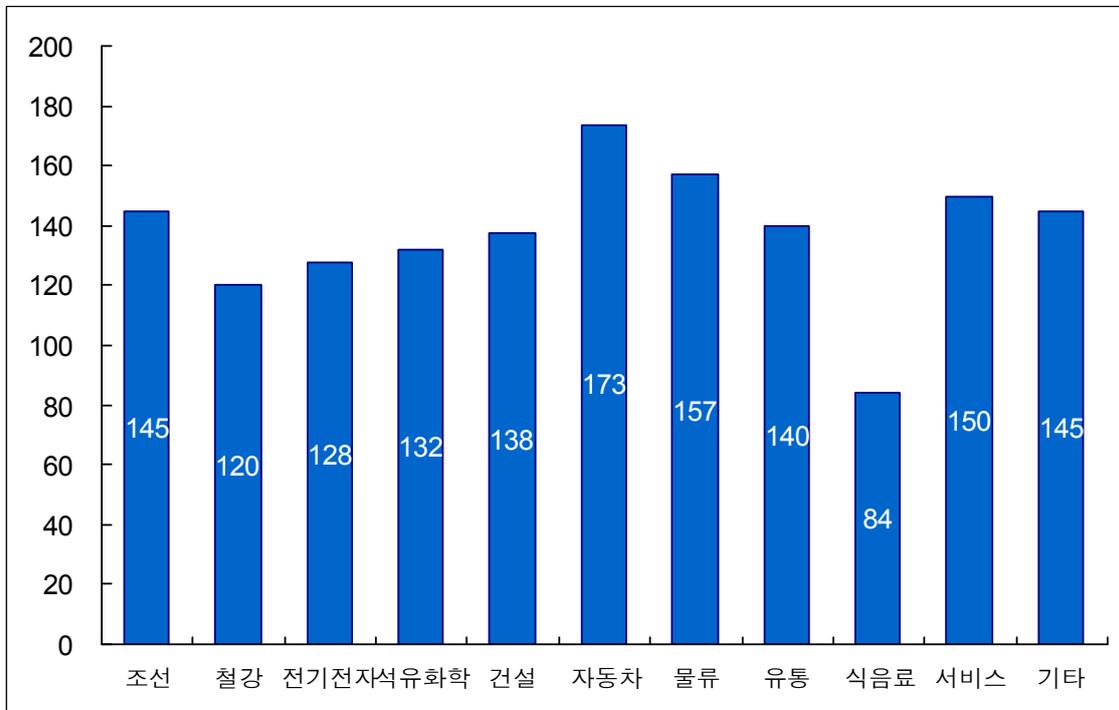
○ (신사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함) 자동차를 제외한 산업들의 경우,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평균 89.3%에 이르나,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은 평균 37.7%에 불과

-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이 50%를 밑도는 산업들은 조선(25%), 철강(20%), 석유화학(44.4%), 물류(42.9%), 식음료(20%), 기타(25%)로 나타남

- 나머지 전기전자, 건설, 유통, 서비스 산업은 아무리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과 그렇지 않다는 기업 비중이 50:50으로 동일

< 산업별 종합투자지수 >

구분	투자추세지수	투자여건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지수	종합투자지수
조선	175.0	100.0	125.0	200.0	125.0	145.0
철강	100.0	120.0	120.0	140.0	120.0	120.0
전기·전자	87.5	100.0	162.5	150.0	137.5	127.5
석유화학	150.0	105.3	155.6	122.3	127.7	132.2
건설	162.5	75.0	137.5	175.0	137.5	137.5
자동차	183.3	116.7	200.0	200.0	166.6	173.3
물류	185.7	100.0	185.7	171.4	142.9	157.1
유통	175.0	125.0	125.0	125.0	150.0	140.0
식음료	40.0	80.0	140.4	80.0	80.0	84.1
서비스	140.0	120.0	180.0	160.0	150.0	150.0
기타	150.0	150.0	162.5	162.5	100.0	145.0



3. 자산 규모별 결과

○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에 적극적) 종합투자지수 뿐 아니라 투자추세지수, 기업가정신지수가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남

- 기업 규모별 종합투자지수는 1조 원 미만 143.5, 1~5조 원 미만 134, 5조 원 이상 130.7로 나타나,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투자에 적극적인 성향을 보임
 - 이는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외연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투자에 민첩하지 못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음

- 1조 원 미만 기업들의 투자추세지수와, 기업가정신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자 의욕이 상대적으로 강할 뿐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장 부담을 작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추세지수는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157.5, 1~5조 원 미만 기업들이 136.7, 5조 원 이상 기업들이 107.7로 나타나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가장 높음
- 기업가정신지수도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135, 1~5조 원 미만 기업들이 133.3, 5조 원 이상 기업들이 115.4로 나타나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가장 높음

○ (1~5조 원 미만 기업들은 투자여건에 대한 불만이 큼) 1~5조 원 미만 기업의 투자여건지수가 96.7로 나타나, 투자여건에 대한 불만이 큼

- 특히,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1조 원 미만 기업들은 22.5%만이, 1~5조 원 미만 기업들은 10%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 (규모가 큰 기업들의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 상대적으로 저조) 기업 규모가 클수록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업 비중이 1조 원 미만 90%, 5조 원 미만 86.7%, 5조 원 이상 69.2%로 나타남

- 특히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53.8%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별 기업투자지수 >

구 분	투자추세지수	투자여건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지수	종합투자지수
1조 원 미만	157.5	112.5	157.5	155.0	135.0	143.5
1~5조 원 미만	136.7	96.7	160.0	143.3	133.3	134.0
5조 원 이상	107.7	123.0	153.8	153.8	115.4	130.7

4. 존속연수별 결과

- (상대적으로 투자에 소극적인 존속연수 60년 이상 기업들) 종합투자지수가 60년 이상 기업들이 128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종합투자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원인은 투자여건지수가 100으로 기타 4개 지수와 30 포인트 이상 낮게 조사되었기 때문임
 - 60년 이상 기업들의 개별투자지수는 투자추세지수 140, 투자심리지수 130, 투자성과지수 140, 기업가정신지수 130임
- (존속연수 20~40년 미만 기업들은 투자여건에 대해 불만) 존속연수 20~40년 미만 기업들의 투자여건지수가 90으로 100을 하회, 투자여건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존속연수 20~40년 미만 기업들의 경우,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이 전체의 6.7%에 불과함
- (존속연수 20년 미만 기업들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상대적으로 뛰어남) 존속연수 20년 미만 기업의 기업가정신지수가 138.5로 나타나 20년 이상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 단, 리스크에 대한 부담 정도는 존속연수 60년 이상 기업들이 가장 작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존속연수 60년 이상이 60%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존속연수 20년 미만 기업들로 46.2%를 차지

< 존속연수별 기업투자지수 >

구 분	투자추세지수	투자여건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지수	종합투자지수
20년 미만	123.0	130.8	161.5	153.8	138.5	141.5
20~40년 미만	146.7	90.0	156.6	150.0	130.0	134.7
40~60년 미만	146.6	120.0	166.7	153.3	130.0	143.3
60년 이상	140.0	100.0	130.0	140.0	130.0	128.0

Ⅲ. 투자 용도

1. 전체

- (기존투자에서 신규투자로 투자 용도 변화) 2008년에는 기존투자의 연속 비중이 낮아지면서 신규투자가 기존투자보다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 기업의 투자 용도로 기존투자의 연속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에는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45.8%로 하락
 - 반면에 신규투자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7년 32.5%에서 2008년 47%로 비중이 커졌을 뿐 아니라 2008년 투자 용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M&A 비중 다소 증가) 2008년에는 기업들이 M&A에 대한 투자도 다소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투자 용도를 M&A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7년 2.4%에서 2008년에는 4.8%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 산업별

- (신규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업은 자동차) 투자 용도를 신규투자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 가장 높았던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08년에도 신규 투자 비중이 가장 큼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신규 투자 응답 기업 비중이 2007년 83.3%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에도 신규투자 응답 기업 비중이 83.3%로 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석유화학, 건설, 물류, 유통 산업은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할 전망) 2007년에 기존투자의 연속으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았던 산업 중 4개 산업이 신규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조사됨

- 신규투자 응답 기업 비중은 석유화학이 2007년 38.9%에서 2008년 77.8%로, 건설이 동 25%에서 62.5%로, 물류가 동 14.3%에서 57.1%로, 유통이 25%에서 50%로 각각 상승

○ (철강, 석유화학, 서비스 산업에서는 M&A도 기대) 2008년에 M&A에 투자 하할 것으로 조사된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서비스의 3개 산업으로 M&A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각각 20%, 5.6%, 10%로 조사됨

- 한편 2007년 투자 용도로 M&A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25%에 달했던 건설 산업의 경우, 2008년에는 M&A가 침체될 전망(응답 기업 비중 0%)

○ (조선, 철강, 전기전자, 식음료, 서비스, 기타 산업은 기존투자 중심) 2008년 투자 용도로 기존투자의 연속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조선, 철강, 전기전자, 식음료, 서비스, 기타로 나타남

- 2008년 투자 용도로 기존투자의 연속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조선 75%, 철강 80%, 전기전자 62.5%, 식음료 100%, 서비스 50%, 기타 75%로 조사됨

< 산업별 투자 용도 비교 >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계획)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연속	M&A	기타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연속	M&A	기타
조선	25.0	75.0	0	0	25.0	75.0	0	0
철강	0	80.0	0	20.0	0	80.0	20.0	0
전기전자	37.5	62.5	0	0	37.5	62.5	0	0
석유화학	38.9	61.1	0	0	77.8	16.7	5.6	0
건설	25.0	50.0	0	25.0	62.5	25.0	0	12.5
자동차	83.3	16.7	0	0	83.3	16.7	0	0
물류	14.3	85.7	0	0	57.1	42.9	0	0
유통	25.0	50.0	0	25.0	50.0	25.0	0	25.0
식음료	20.0	80.0	0	0	0	100.0	0	0
서비스	50.0	50.0	0	0	40.0	50.0	10.0	0
기타	12.5	62.5	25.0	0	12.5	75.0	12.5	0
전체	32.5	60.2	2.4	4.8	47.0	45.8	4.8	2.4

3. 자산 규모별

○ (신규투자 증가 기대) 투자 용도를 신규투자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전 자산 규모별 기업들에 있어서 증가

- 투자 용도를 신규투자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1조 원 미만 2007년 20%에서 2008년 40%, 1~5조 원 미만 동 43.3%에서 53.3%, 5조 원 이상 동 46.2%에서 53.8%로 증가, 2008년에는 신규투자가 늘어날 전망

○ (5조 미만 기업들의 M&A 투자 기대) 2008년 투자 용도로 M&A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자산 규모 1조 원 미만 기업들이 7.5%, 자산 규모 1~5조 원 미만 기업들이 3.3%로 나타남

- 특히, 1조 원 미만 기업들은 투자 용도로 M&A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 기준 2.5%에서 2008년 7.5%로 다소 증가, 상대적으로 M&A 투자가 활발할 전망

○ (단조로운 5조 이상 기업들의 투자 패턴) 자산 규모 5조 이상 기업들은 2008년에도 2007년에 이어 신규투자과 기존투자 중심의 단조로운 투자 형태를 보일 것으로 조사됨

- 자산 규모 5조 이상 기업들의 투자 용도 구성을 보면 2007년에 신규투자과 기존투자 각각 46.2%와 53.8%로 100%를 구성한 반면 2008년에는 신규투자가 53.8%, 기존투자가 46.2%로 100%를 구성

< 자산 규모별 투자 용도 >

구 분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연속		M&A		기타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1조 원 미만	20.0	40.0	72.5	52.5	2.5	7.5	5.0	0.0
1~5조 원 미만	43.3	53.3	46.7	36.7	3.3	3.3	6.7	6.7
5조 원 이상	46.2	53.8	53.8	46.2	0.0	0.0	0.0	0.0

4. 존속연수별

- (60년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 존속연수가 60년 이상 기업들의 경우 신규투자과 기존투자의 연속이 100%로 M&A나 기타에는 투자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임
 - 존속연수 60년 이상 기업들의 경우 2008년 투자 용도로 신규투자과 기존투자의 연속이라 응답한 기업이 각각 5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음
 - 2007년에도 신규투자 20%, 기존투자의 연속 80%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보였음

- (20년 미만 기업에서 M&A가 가장 활발) 존속연수 60년 미만 기업들의 경우 2008년에 M&A에 투자할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20년 미만 기업들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존속연수 20년 미만 기업들의 경우 투자용도가 M&A라는 응답 비중이 2008년 7.7%로 가장 응답 비중이 높음
 - 특히, 2007년의 경우 M&A에 투자했다는 기업은 존속연수 20년 미만 기업들뿐 (응답 비중 15.4%)이었음

< 존속연수별 투자 용도 >

구 분	신규투자		기존투자의 연속		M&A		기타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년 미만	38.5	30.8	38.5	53.8	15.4	7.7	7.7	7.7
20~40년 미만	30.0	50.0	63.3	40.0	0.0	6.7	6.7	3.3
40~60년 미만	36.7	50.0	60.0	46.7	0.0	3.3	3.3	0.0
60년 이상	20.0	50.0	80.0	50.0	0.0	0.0	0.0	0.0

IV. 주요 투자 분야

1. 전체

○ (연관사업에 투자 집중) 주요 투자 분야로 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 92.8%에서 2008년 9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에도 연관사업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 비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7년 7.2%에서 2008년 6.0%로 감소

2. 산업별

○ (대부분의 산업들이 연관사업에만 투자) 석유화학, 건설, 기타의 3개 산업에서만 비연관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조선,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물류, 유통, 식음료, 서비스의 8개 산업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연관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100%

- 석유화학, 건설, 기타의 3개 산업은 2008년 주요 투자 분야로 비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이 각각 11.1%, 12.5%, 25%로 나타남

· 단, 건설 산업의 경우 주요 투자 분야가 비연관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2007년 25%에서 2008년 12.5%로 감소

< 산업별 투자 분야 비교 >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계획)	
	비연관사업	연관사업	비연관사업	연관사업
조선	0	100.0	0	100.0
철강	0	100.0	0	100.0
전기전자	0	100.0	0	100.0
석유화학	11.1	88.9	11.1	88.9
건설	25.0	75.0	12.5	87.5
자동차	0	100.0	0	100.0
물류	0	100.0	0	100.0
유통	0	100.0	0	100.0
식음료	0	100.0	0	100.0
서비스	0	100.0	0	100.0
기타	25.0	75.0	25.0	75.0
전체	7.2	92.8	6.0	94.0

3. 자산 규모별

○ (연관사업 집중) 자산 규모별로도 연관사업 투자에 집중될 전망

- 2008년 주요 투자 분야로 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1조 원 미만 92.5%, 1~5조 원 미만 93.3%, 5조 원 이상 100%로 자산 규모가 클수록 연관사업 투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기업들의 경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비연관사업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

< 자산 규모별 주요 투자 분야 >

구 분	비연관사업		연관사업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1조 원 미만	10.0	7.5	90.0	92.5
1~5조 원 미만	6.7	6.7	93.3	93.3
5조 원 이상	0.0	0.0	100.0	100.0

4. 존속 연수별

○ (60년 미만 기업들에서 비연관사업 투자 기대) 존속 연수 60년 이상 기업들은 연관사업에만 투자하겠다고 밝혀, 비연관사업 투자는 60년 미만 기업들에게서 기대가 가능할 것임

- 2008년 주요 투자 분야가 비연관사업이라 응답한 기업 비중은 존속연수 20년 미만 7.7, 20~40년 미만과 40~60년 미만이 6.7%로 조사됨
- 기업 존속 연수가 60년 이상된 기업들의 경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연관사업에만 투자(응답 비중 100%)할 것으로 전망됨

< 존속 연수별 주요 투자 분야 >

구 분	비연관사업		연관사업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20년 미만	7.7	7.7	92.3	92.3
20~40 미만	10.0	6.7	90.0	93.3
40~60 미만	6.7	6.7	93.3	93.3
60년 이상	0.0	0.0	100.0	100.0

V. 투자 애로 요인

1. 전체

○ (수익성 악화, 규제, 내수부진이 기업의 투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 현재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수익성 악화'가 30.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투자관련 규제' 27.7%, '내수부진' 2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그 동안 큰 문제로 지적되던 '노사문제'와 '반기업정서'를 투자 애로 요인으로 꼽은 기업들의 비중은 각각 4.8%와 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애로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2. 산업별

- 조선(75%), 철강(40%), 전기전자(37.5%), 석유화학(33.3%)은 '투자관련 규제'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
- 자동차(66.7%), 서비스(60%)는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
- 물류(42.9%)는 '자금조달 곤란'이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
- 식음료는 응답기업의 60%가 '내수 부진'을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선정
- 건설은 '내수 부진(37.5%)'과 '수익성 악화(37.5%)'를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지적
- 한편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반기업 정서'가 투자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철강,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문제'가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
 - 타 산업에서는 투자 애로 요인이 아닌 '반기업 정서'가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투자애로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 비중이 5.6%에 이룸
 - '노사문제'는 철강(20%), 전기전자(12.5%), 석유화학(5.6%), 자동차(16.7%) 산업에서는 투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이 보는 투자 애로 요인 >

(단위: %)

구분	내수부진	자금조달 곤란	수익성 악화	투자관련 규제	노사문제	반기업정서	기타
조선	0.0	0.0	0.0	75.0	0.0	0.0	25.0
철강	20.0	0.0	20.0	40.0	20.0	0.0	0.0
전기·전 자	12.5	0.0	12.5	37.5	12.5	0.0	25.0
석유화학	22.2	0.0	22.2	33.3	5.6	5.6	11.1
건설	37.5	0.0	37.5	12.5	0.0	0.0	12.5
자동차	0.0	0.0	66.7	16.7	16.7	0.0	0.0
물류	0.0	42.9	14.3	28.6	0.0	0.0	14.3
유통	25.0	25.0	25.0	25.0	0.0	0.0	0.0
식음료	60.0	0.0	20.0	20.0	0.0	0.0	0.0
서비스	20.0	0.0	60.0	20.0	0.0	0.0	0.0
기타	37.5	0.0	37.5	12.5	0.0	0.0	12.5
전체	21.7	4.8	30.1	27.7	4.8	1.2	9.6

3. 자산 규모별

- 자산 규모 1조 원 미만 기업들에게는 '수익성 악화(35%)'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됨
-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 기업들에게는 '투자관련 규제'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나타남
 - 자산 규모 1~5조 미만 기업의 36.7%, 5조 원 이상 기업의 30.8%가 '투자관련 규제'가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자산 규모별 투자 애로 요인 >

(단위: %)

구분	내수부진	자금조달 곤란	수익성 악화	투자관련 규제	노사문제	반기업정서	기타
1조 원 미만	27.5	5.0	35.0	20.0	5.0	0.0	7.5
1~5조 원 미만	23.3	3.3	26.7	36.7	0.0	3.3	6.7
5조 원 이상	0.0	7.7	23.1	30.8	15.4	0.0	23.1

4. 존속 연수별

- 기업 존속 연수가 짧을수록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투자관련 규제'를 지적한 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존속 연수별 투자 애로 요인 중 '투자관련 규제' 응답 비중은 20년 미만 38.5%, 20~40년 미만 36.7%, 40~60년 미만 20%, 60년 이상이 10% 순으로 나타남
- 기업 존속 연수가 20년 미만 기업과 60년 이상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
 -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년 미만 46.2%, 60년 이상 50%로 다른 투자 애로 요인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 존속 연수가 20~40년 미만인 기업들은 '투자관련 규제(36.7%)'가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나타남
- 기업 존속 연수가 60년 이상인 기업들의 경우 '수익성 악화(50%)'에 이어 '노사문제(20%)' 또한 상당히 큰 애로 요인으로 지적

< 존속 연수별 투자 애로 요인 >

(단위: %)

구 분	내수부진	자금조달 곤란	수익성 악화	투자관련 규제	노사문제	반기업정서	기타
20년 미만	0.0	7.7	46.2	38.5	0.0	0.0	7.7
20~40년 미만	26.7	3.3	16.7	36.7	3.3	3.3	10.0
40~60년 미만	30.0	3.3	30.0	20.0	3.3	0.0	13.3
60년 이상	10.0	10.0	50.0	10.0	20.0	0.0	0.0

V.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

1. 전체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 조사대상 기업들은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규제완화를 지적

- 응답 기업들 가운데 31.3%가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지적
- 다음으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18.1%)',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13.3%)', '수도권 규제 완화(13.3%)', '법인세 인하(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산업별

-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투자 관련 규제완화'를 지정한 산업은 조선(75%), 석유화학(38.9%), 서비스(50%)로 조사됨
-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을 지정한 산업은 자동차(66.7%) 산업임
-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정한 산업은 건설로 응답 기업 중 50%에 이룸
-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는 '투자관련 규제 완화(25%)'와 '법인세 인하(25%)'를, 유통 산업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50%)', '투자관련 규제 완화(50%)'를, 식음료 산업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40%)'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40%)'를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꼽음

- 한편 물류 산업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자금 조달 환경 조성'이 각각 28.6%로 나타났으며, 철강 산업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 '법인세 인하'가 각각 20%로 나타남

<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정부의 노력 >

(단위: %)

구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	반기업 정서 해결	투자관련 규제 완화	자금조달 환경개선	법인세 인하	기타
조선	0	0	25.0	0	75.0	0	0	0
철강	20.0	20.0	20.0	0	0	0	20.0	20.0
전기전자	0	12.5	12.5	0	25.0	0	25.0	25.0
석유화학	0	5.6	16.7	5.6	38.9	0	27.8	5.6
건설	25.0	50.0	0	0	12.5	12.5	0	0
자동차	0	0	66.7	0	33.3	0	0	0
물류	28.6	28.6	0	0	14.3	28.6	0	0
유통	0	0	50.0	0	50.0	0	0	0
식음료	40.0	20.0	40.0	0	0	0	0	0
서비스	10.0	0	0	0	50.0	10.0	20.0	10.0
기타	37.5	12.5	12.5	0	37.5	0	0	0
전체	13.3	13.3	18.1	1.2	31.3	4.8	12.0	6.0

3. 자산 규모별

- 5조 미만 기업들의 경우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투자관련 규제 완화'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가장 큼
- 5조 이상 기업들은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과 '법인세 인하' 응답 비중이 30.8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자산 규모별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단위: %)

구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	반기업 정서 해결	투자관련 규제 완화	자금조달 환경개선	법인세 인하	기타
1조 원 미만	22.5	17.5	15.0	0.0	25.0	7.5	7.5	5.0
1~5조 원 미만	3.3	13.3	16.7	3.3	46.7	3.3	10.0	3.3
5조 원 이상	7.7	0.0	30.8	0.0	15.4	0.0	30.8	15.4

4. 기업 존속 연수별

- 존속 연수 60년 이상 기업의 40%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을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
- 존속 연수 60년 미만 기업들은 '투자관련 규제 완화'를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

< 기업 존속 연수별 투자 애로 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

(단위: %)

구분	강력한 경기 부양책 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	반기업 정서 해결	투자관련 규제 완화	자금조달 환경개선	법인세 인하	기타
20년 미만	7.7	7.7	7.7	0.0	38.5	7.7	23.1	7.7
20~40년 미만	13.3	13.3	16.7	3.3	30.0	6.7	10.0	6.7
40~60년 미만	16.7	13.3	16.7	0.0	33.3	3.3	13.3	3.3
60년 이상	10.0	20.0	40.0	0.0	20.0	0.0	0.0	10.0

VI. 시사점

○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 시급)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의 투자 여건에 상당히 불만족하고 있고, 투자관련 규제를 가장 큰 투자 애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

- **경제의 안정 성장** : 인위적인 경제 부양책을 지양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경제의 안정 성장을 추구하여 기업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함

· 더욱이 금융 기관의 가계 대출 모니터링 강화, 사금융 대부업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 제고,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향 안정 유도, 국내 물가 안정 등을 통해 내수의 지속적인 회복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 : 투자 관련 행정 절차의 간소화,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을 포함한 팩키지형 투자 활성화 정책의 시행이 필요

- **산업별 맞춤형 투자 환경 개선** : 한편 산업별로 투자 애로 요인과 정부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요구가 달라 산업별 맞춤형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함

· 주기적인 산업별 투자 환경 조사를 통해 산업별 투자 환경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정부와 기업의 신산업 육성 협력 전략의 추진)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신산업 육성 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관 공동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 정부와 기업의 신산업 육성 협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중장기 미래의 경제사회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투자·육성시킬 분야를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칭 '민관 공동 미래전략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자원 확보 전략의 추진) 자원외교의 강력한 추진,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자원 확보 전략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조달 환경 마련

- 자원외교의 강력한 추진 : 중동 지역은 물론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들과의 자원외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체제 구축이 시급

-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 국내외 자원 개발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해외 자원 개발 및 확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북한 보유 자원 개발 촉진 : 북한과 공동으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 내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촉진하여, 북한 내 지하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기업가정신의 고양) 위험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교육을 통한 기업가 양성 및 기업가정신 함양 체제 마련, 창업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것임

- 위험자산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벤처캐피탈, 엔젤 등 위험자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대를 유도

- 교육을 통한 기업가 양성 및 기업가정신 함양 : 기업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의 도입 등으로 교육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필요

- 창업 환경 개선 : 창업 관련 규제의 과감한 완화,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강화, 창업 기업에 대한 정부 R&D사업 참여 촉진 정책 마련 등 종합적인 창업 환경 개선 전략의 추진이 필요